

碩士學位請求論文

高校生の職業抱負를 決定하는
社會·心理的 要因 探索

指導教授：高 明 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 行政 專攻

金 成 益

1 9 9 4 年 8 月

高校生の職業抱負를 決定하는 社會·心理的 要因 探索

指導教授 高 明 奎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金 成 益



金成益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김명奎
김성익
김성익

목 차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의 問題	3
3. 研究의 制限點	4
II. 理論的 背景	5
1. 職業抱負의 概念	5
2. 社會的 地位 獲得에 關聯된 社會·心理的 要因	6
3. 職業抱負와 社會的 地位獲得과의 關係	9
4. 職業抱負 決定에 影響을 주는 社會·心理的 要因	11
III. 研究 方法 및 節次	18
1. 研究模型	18
2. 變因의 測定	19
3. 調査 對象	24
4. 資料處理 및 分析	25
IV. 研究 結果 및 解釋	26
1. 各 變因別에 따른 職業抱負의 水準의 差異分析	26
2. 全體別에 따른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影響分析	29
3. 性別에 따른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影響分析	33
4. 系列에 따른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影響分析	39
V. 要約 및 結論	47
1. 要約	47
2. 結論 및 提言	51
參 考 文 獻	55
英 文 抄 錄	
附 錄	

표 목 차

<표Ⅱ- 1> 진로 결정 및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14
<표Ⅲ- 1> 직업 분류표	20
<표Ⅲ- 2> 교육포부 수준	21
<표Ⅲ- 3> 학업성적 수준	21
<표Ⅲ- 4>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정도	22
<표Ⅲ- 5>父의 교육 수준	23
<표Ⅲ- 6> 가정의 경제 수준(수입)	23
<표Ⅲ- 7>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수준	24
<표Ⅲ- 8> 조사 대상	24
<표Ⅳ- 1> 각 독립 변인의 직업포부 수준차	27
<표Ⅳ- 2>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단순 상관 (전체별)	29
<표Ⅳ- 3>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전체별)	30
<표Ⅳ- 4>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 (전체별)	33
<표Ⅳ- 5>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 (남자)	33
<표Ⅳ- 6>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 (여자)	34
<표Ⅳ- 7>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남자)	35
<표Ⅳ- 8>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여자)	36
<표Ⅳ- 9>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남자)	38
<표Ⅳ-10>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여자)	38
<표Ⅳ-11>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실업계)	40
<표Ⅳ-12>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일반계)	40
<표Ⅳ-13>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실업계)	41
<표Ⅳ-14>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일반계)	42
<표Ⅳ-15>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실업계)	45
<표Ⅳ-16>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일반계)	45

그림 목 차

[그림 II -1] Blau와 Duncan모형	8
[그림 II -2] Wisconsin모형	8
[그림 II -3] 진로 계획 설정의 관련 요인 모형	15
[그림 II -4] 신군자 모형(1981)	15
[그림 III -1] 因果模型	18
[그림 IV -1]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전체)	31
[그림 IV -2]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남자)	37
[그림 IV -3]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여자)	37
[그림 IV -4]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실업계)	43
[그림 IV -5]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일반계)	44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 받는다. 사회적 지위에 대해 기대되는 행동으로써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 지위는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으며, 사회는 바로 이러한 上下의 질서를 갖는 지위체계로 파악될 수 있다.(배천웅, 1978. p.1)

또한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 모두가 富, 名譽, 權力 등을 획득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願望하나 그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별 과정을 거쳐 그 지위를 차지할 일부의 성원들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Goodstein의, 1972) 그리고 인간은 직업 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 실현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므로 직업은 개인의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자신의 삶으로 부터 느끼는 만족감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충기, 1989. p.60)

따라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 생활을 통해 직업적, 또는 직분적 존재로서 일정한 직업 생활을 영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봉사하게 되므로써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고도의 산업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직업의 세계가 다양화, 세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개인의 직업 선

택에 있어서 혼란과 함께 크나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김충기,1989. p.143)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발달 단계로 보아 청소년기에 해당되며 그들은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심리적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스스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 특히 장래 직업선택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할 것이라 생각 된다.(고형일,1978. p.1)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약 90%가 직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직업군과 직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김충기,1989. p.60)

이러한 연구가 일반화 시킬수 없는 절대적인 의식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식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미래의 직업인으로써 사회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관념이 순수한,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진로 지도를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현실에 입각한 건전한 직업포부 형성을 위한 進路(職業)指導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W.H. Sewell(1970)등은 고등학교 시절에 형성된 직업에 대한 포부는 고등학교 학생의 장차 도달하게 될 직업적 위신(occupation prestige)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의 직업 획득(사회적 지위 획득)을 豫言하는데 중요한 指標가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실증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영역의 하나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학생들의 직업포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하다.(고형일,1978.p.2)

이와 같이 고등학교 학생이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國

內·外 관련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父의교육,父의 직업,수입),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교사,친구,선배), 학업성적, 직업포부 등 귀속적 배경 요인과 성취적 능력 요인들중 개인의 직업포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력을 더 주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미래의 직업 준비자인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직업적 도달 수준을 예상하는 것으로써 현재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배경 변인들과의 상호 관련성과 因果關係를 맺으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힘으로써 올바른 직업 교육 방안 모색과 발전적인 進路(職業)指導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고교생의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의 進路(職業)指導에 어떠한 示唆點을 주게 될 것이다.



2. 研究의 問題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조사,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학생들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각 변인별 직업포부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 학생들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 학생들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 학생들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간의 상호 因果關係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한 개인의 직업포부 결정에 따라 미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을 豫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전국으로 하지 않고 제주도내 실업계 및 일반계 남·여 2학년 학생으로 한정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 2)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직업 지위 획득의 선행 단계인 직업포부의 결정 단계까지로 제한하였고, 개인의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는가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 3) 청소년기에 가졌던 인지나 포부가 계속 변화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못했다.
- 4) 본 연구에서는 직업포부 관련 변인을 SES,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학업성적, 교육포부 등 4개 변인으로만 제한 하였다.

Ⅱ. 理論的 背景

여기에서는 직업포부의 개념, 사회적 지위 획득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 직업포부와 사회적 지위 획득과의 관계,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의 순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職業抱負의 概念

抱負水準은 Dembo에 의해 도입되어 Lewin에 의해 발전된 인간의 목표 추구 행동을 설명하려는 개념이다.(배천용,1978,p.63) 어떤 개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장래의 성취 수준을 말하며, 성공감과 실패감은 여러 가지 목표설정에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Gates,1948) 또한 J.D.Frank(1935)는 포부란 “한 개인의 어떤 과제에 대해 과거의 업적을 알고서 다음의 과제에 있어 도달하려고 하는 미래의 업적수준”이다. 즉, 행동 목표에 관련된 도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쉽게 성공할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행동으로 정의 하였다.

그러나 직업포부 수준 개념이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에 희망포부를 갖는다는 것은 이상적인 차원에서 희망하는 것과 현실적인 차원에서 희망하는 두가지 포부로 나누어 볼수 있다. (구봉수,1976,p.51) R.N.Stephenson(1962)은 청소년이 미래 직업을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을 'wish'라 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을 'plan'이라 하여 포부를 양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원천 계층(가정의 사회 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직업을 바라지만 또한 하류층의 청소년

년도 상당한 정도의 직업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천 계층에 따른 청소년이 이상적인 미래 직업(wish)에는 차이가 없지만 현실적인 미래 직업(plan)에는 원천 계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wish는 가정의 계층과 상관이 없는데 plan은 가정의 계층과 상관이 있음을 뜻한다. 이밖에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는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E.Ginzberg(1966)등은 연령이 어릴수록 그들이 설정한 포부가 이상적이며 환상적인데 비해 청소년후기(18세 이상)에 들면서부터는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 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직업포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등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미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社會的 地位 獲得에 關聯된 社會 心理的 要因

청소년의 지위 획득의 문제는 세대간 이동의 문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지위 소유자라기 보다는 지위 원망자, 지위 획득 준비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Keith,1973) 따라서 청소년기에 가졌던 미래의 지위에 대한 회원 구현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의 분석을 중시하는 경우 사회 이동이란 개념 대신 지위 획득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며 그 구체적인 지표로서는 많은 경우 직업적 지위로 나타내어 진다.(배천웅,1978,p.10) 출생과 함께 귀속적으로 개인의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지위 획득은 그 개인이 연령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진다.

귀속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갖는 富, 權力, 名譽 등은 세습적으로 전달되

기 때문에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는 그 개인이 어떤 신분의 출신 인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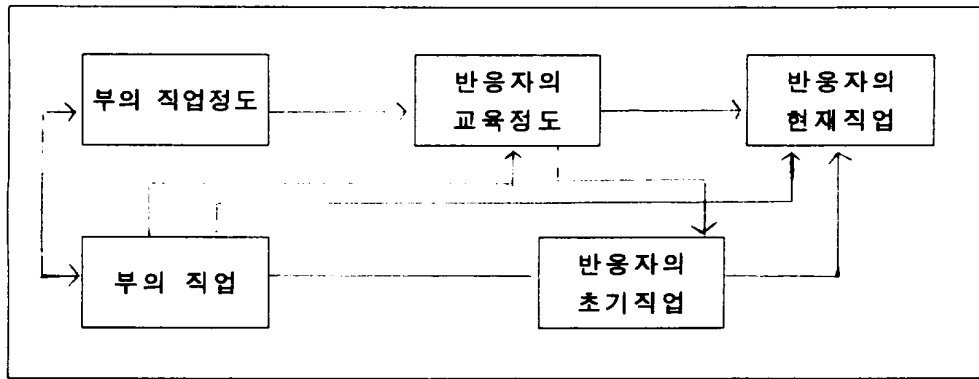
그러나 현대의 개방 사회에서는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 및 富, 權力, 名譽 등이 분배된다는 실력주의 원리가 새로운 선별원리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機制로 擧過되었다.(Keith,1973)

물론 이러한 주장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와 반드시 일치하여 분배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대의 개방 사회에 있어서는 “그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업을 중요한 지위의 指標로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배천웅,1978.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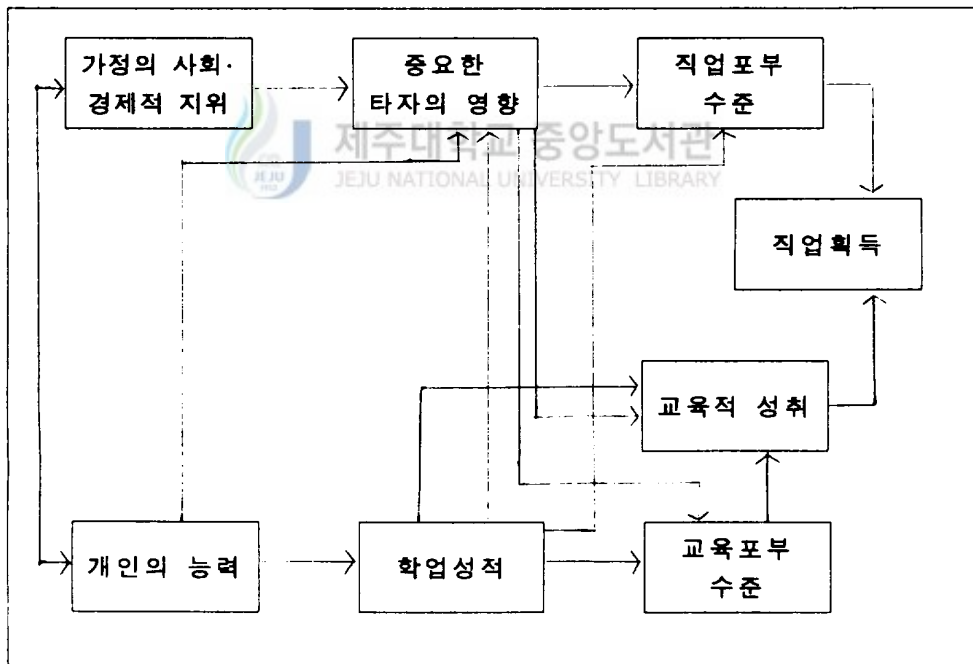
청소년의 초기 지위 획득에 작용하는 변인을 체계화하여 因果關係를 밝히려는 주요 이론적 모형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는 Blau와 Duncan의 모형이고 둘째는 Sewell등에 의해 이루어진 Wisconsin모형등을 들 수 있다.(Blau & Duncan,1967)

Blau와 Duncan은 청소년의 지위 획득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주로 구조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父의 직업, 父의 학력, 반응자의 교육 정도, 반응자의 초기 직업 등) 반응자의 현재 직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因果關係로 분석하였다. (그림 II-1 참조)



[그림 II-1] Blau와 Duncan모형

Sewell(1970)등에 의한 Wisconsin 모형은 구조적인 요인 외에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선정하여 개인의 지위획득에 媒介的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심리적 변인의 역동성을 탐구하는데 因果分析 하였다.



[그림 II-2] Wisconsin모형

이들 두 연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Blau와 Duncan의 연구와는 달리 Sewell 등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 개인의 능력을 또다른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고 중요한 타자의 영향이라든가 포부 수준등 사회·심리적 변인을 도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들 두 연구들은 지금까지 세대간의 사회 이동율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그쳤던 연구들에서 전진하여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을 설명하려 하였다는데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종단적 연구로서 실제 사회적 지위 획득의 과정을 밝혀 내므로써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성격상 긴 기간을 두고 종단적 연구를 실시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사회적 지위 획득의 선행 단계의 직업포부의 결정 단계까지로 제한하였다.

3. 職業抱負와 社會的 地位獲得과의 關係

직업포부 수준이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하나의 변인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미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과의 관련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미래 직업 획득에 대한 포부 수준이 다루어진다.

직업포부는 사회 계층과 관련하여 사회 계층에 따라 지위 상승에 대한 기대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지위상승에 대한 기대는 미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Gurin,1975)

Hyman(1966)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계층별로 미래의 직업, 교육에

대해 각기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류층의 청소년들은 상류층의 청소년에 비해 미래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에 대한 포부가 낮았다. 따라서 하류층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이동성이 부족한 이유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신념, 가치관 등이 작용하여, 이러한 신념, 가치관이 그들의 하류층이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자의적 행동은 저해한다는 것이다. Blau and Duncan(1967)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접근으로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등과 같은 배경변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반면 Sewell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접근으로서 사회적 지위 획득은 구조적 변인에 의해서 보다는 사회·심리적 변인 즉,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포부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Duncan(1971) 등은 Haller와 Butterworth가 연구한 직업·교육적 포부 수준에 대해 미치는 동료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관련된 교육적 포부 수준과 직업적 포부 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고, 즉, 직업적 포부 수준과 교육적 포부 수준이 별개가 아니며 보다 일반적인 포부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시절의 교육적, 직업적 포부가 학생의 장래 사회적 지위 획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직업포부는 선행 요인들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력의 대부분의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媒介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포부와 직업포부의 실행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핵심적 부분이 되는 이유는 바람직한 목표를 향한 명백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일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타자 및 개인 자신의 자기 평가에 의해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Haller & Portes,1973)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때, 직업포부는 장래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사회적 지위 획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
되 전체 과정 중에서 직업포부까지의 단계로 제한하여 직업포부 결정에 영
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4. 職業抱負 決定에 影響을 주는 社會·心理的 要因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규
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 신체
적, 정신적 발달 수준, 사회·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복합적 상호 작용에 의
해서 이루어지며 또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직업포부 결정은
개인의 인격의 表層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深層 내지는 전면에서
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 요인들은 그 사회의 특성 및 상황
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에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직업포부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측면도 학자에 따라 매
우 다양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國內·外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이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의 현실 상황에 적합한 요인 및 因果模型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Wisconsin(허철수,1986,p.44.재인용)의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Sewell등의 연구는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능력, 학업성적, 중요한 타자의 영향, 교육포부 등을 들고 있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능력을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고,
이것이 학업성적과 중요한 타자의 영향에 因果的으로 작용하며 다시 교육포

부와 직업포부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타자들은 내재적인 개인의 능력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업 성취도를 근거로 부여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변인은 중요한 타자의 영향으로서 이는 직업포부 및 직업지위 획득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Sewell과 Hauser(1975)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배경에 따라 직업포부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청소년들이 농촌 청소년들보다 높은 직업포부를 가지며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포부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Yogev(1981)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능력, 학업성적 등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유의미 타자의 영향에 의해 媒介되며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이 지위 포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결론내렸고, Yogev는 그의 연구 보고에서 Wisconsin모형에 근거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지위포부 및 지위획득에 미치는 개인간의 영향 특히 중요한 타자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Hansen(1977)는 Wisconsin모형을 Brazil에 적용시켜 연구한 것을 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지능, 중요한 타자의 영향, 학업성적 등이 교육적, 직업적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이며 지능은 상대적으로 미소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Sewell등에 의한 연구 결과와는 다소의 차이를 보여 주고있다.

또한 이 연구는 각 사회 특유의 문화에 따라 장래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문화 규범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함을 示唆하였다.

Alexander(1978)등에 의하면 학생들의 가정 배경은 고등학교에서의 계열 구분에 영향을 주며 계열은 고등학교 시절동안의 학업 성취, 지위 목표, 중요한 타자로부터의 격려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며, 계열 구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가정 배경의 실제적 영향이며 개인의 능력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열은 장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Alexander와 Eckland(1974), Sewell등에 의하면 부모의 격려 및 계열별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곧 지위 포부 및 성취정도의 상의 차이를 야기시킨다고 하였고, 학습 능력과 가정 배경을 통제해도 이러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여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은 직업포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직업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더 민감하며, 남자의 직업포부는 여자보다 父의 직업, 능력, 학업성적, 중요한 타자의 후원 및 격려에 대해 좀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이재분(1986)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 선택 혹은 진로 결정. 진로 의식 성숙, 직업포부 등은 사회·심리적 요인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면 < 표Ⅱ-1 >과 같다.

<표 II-1> 진로 결정 및 직업 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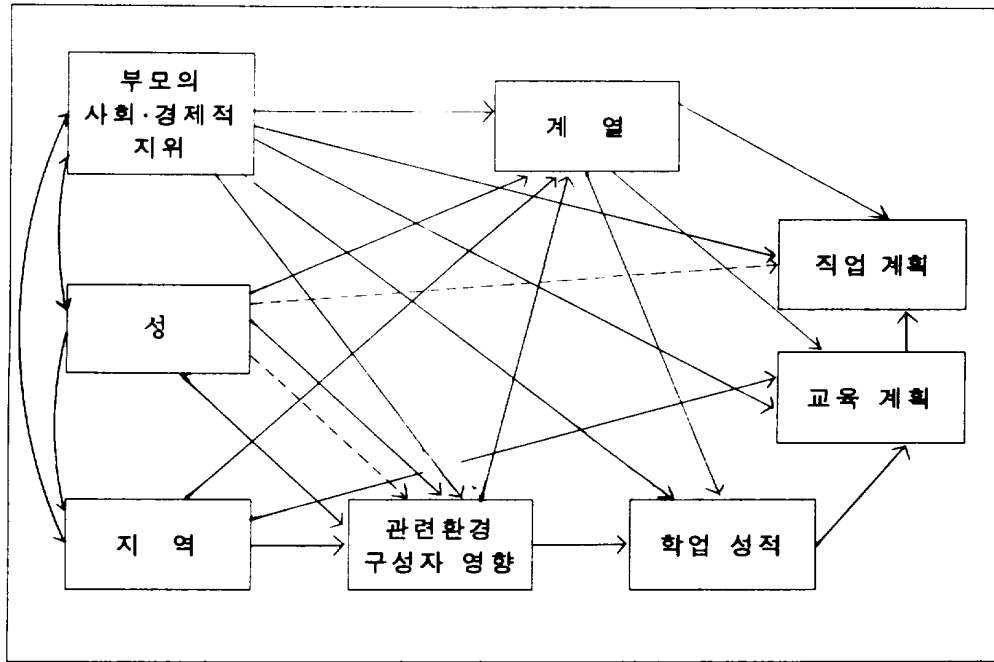
영역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S.E.S (가정수입 + 부모의 학력 + 부모의 직업), 지역 (도시, 농촌)
교육 환경적 요인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유형 (인문계, 실업계), 직업정보원 (잡지, 신문, TV, 라디오, 견학, 교과서), 직업결정 영향인 (친구, 형제, 선생님, 부모, 선배) (중요한 타자 영향)
개인적 요인	성(남,여), 연령, 지능, 성적, 가치관 (인격, 사랑, 우정, 사회봉사, 물질생활, 명예, 권력, 학문, 창조적 활동, 종교적 믿음), 직업흥미 (문학흥미, 과학흥미, 설득흥미, 실무흥미, 옥외흥미, 예술흥미, 사회봉사흥미)

김원중(1984)은 「진로 의식 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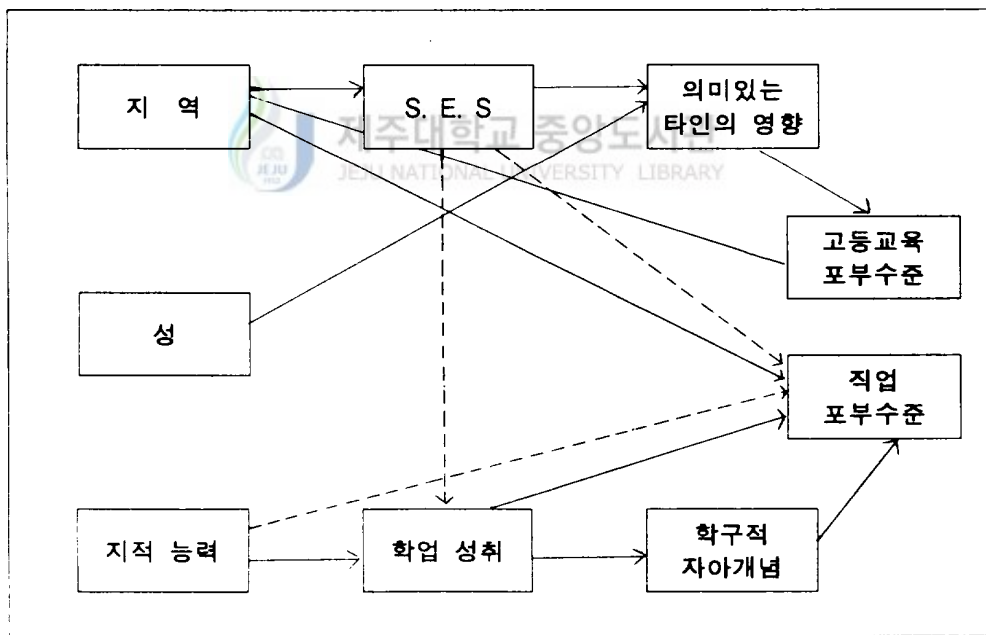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은 학년, 성, 자아 개념, 내외 통제 신념,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등의 여섯가지 사회·심리적 변인과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변인이외에도 거주 지역, 포부 수준, 출생 순서, 부모의 직업관 등의 수많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진로 의식 성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하였다.

고형일(1978)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행로분석을 시도한 결과 학생의 학업 성취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 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학업 성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교육 기대 등은 학생의 현실적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생의 현실적 교육포부는 이상의 세 요인에 의해 48.1%까지 豫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포부와 직업포부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대로 직업포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것으로 간주된다.

조문현(1982)은 「한국 고등학생의 진로 계획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진로 계획 설정 과정과 그 주요 요인은 성, 거주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주위의 관련 환경 구성자의 영향, 학업 성적, 계열 구분 등, 관련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因果模型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3] 진로 계획 설정의 관련 요인 모형



[그림 II-4] 신군자 모형(1981)

신군자(1981)는 우리 나라 남성과 여성의 고등 교육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직업에 대한 기대 및 고등 교육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던 7개의 변인들 중에서 학구적 자아개념 변인을 제외한 학업 성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의미있는 타인 영향, 지적 능력, 성별, 지역 요인의 6개 변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들 변인들로서 한국 학생의 직업포부는 27%, 교육포부는 42%가 설명되었다.

이종재외(1978) 「한국 초·중학교 학생의 특성과 학업 성취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특성의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임순(1989) 「여고생의 직업관 연구」에 관한 연구에서 여고생의 직업관은 학교 유형, 계열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배천웅(1978)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생활 기회(chance of life)와 생활 양식(way of life)의 차이를 가져옴으로서 청소년의 지위 획득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개인의 직업 및 직업포부 결정 요인에 관련되는 國內·外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에 기초하여 볼 때 이러한 제 변인들이 직업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및 중요성에 관해 國內·외 선행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國內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계열, 성별요인등 대개 귀속적인 요인이 대부분 강조하고 있고 國외의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능력, 학업성적,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부모, 교사, 친구등) 교육포부등 주로 성취적인 요인이 중요성을 부각시킨 연구라 생각된다. 위 國內·外 선행 연구에서 보는 바와같이 귀속적 요인과 성취적 요인의 차이점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회 구조, 문화적 규범, 교육 환경 여건, 개인적 특성 등 사회·심리적 변인들과 그 사회가 가진 제 특성에 따라 직업포부 결정 요인에 대한 영향력 크기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제반 상황을 고찰해 볼 때 道內 고등학생들의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과연 귀속적 요인과 성취적 요인 중 어느 것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 연구는 道內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포부를 결정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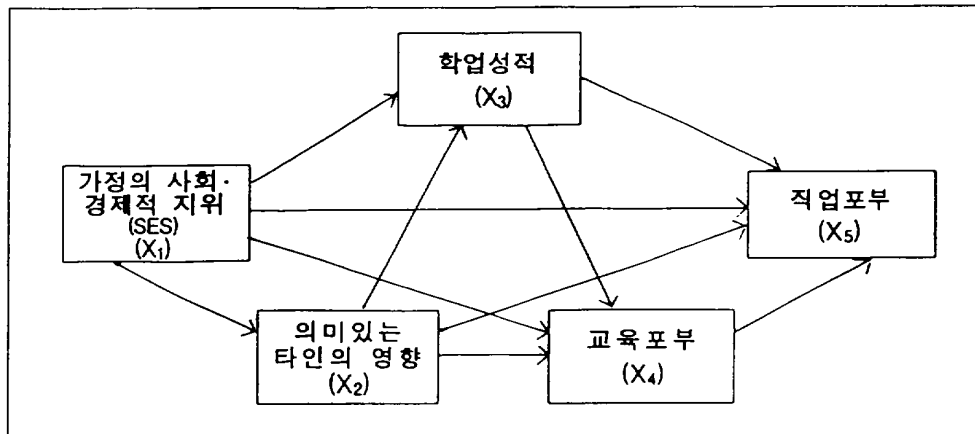
Ⅲ. 研究 方法 및 節次

1. 研究模型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에서, 사회·심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체계화 하려고 하였다.

개인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제안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因果模型은 Sewell의 기존모형과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제시한 주요 변인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높은 직업포부 관련 변인으로써 유의도 수준을 만족시키는 변인들 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父의 교육, ㉡父의 직업, ㉢가정수입) ②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교사, 친구, 선배), ③학업성적, ④ 교육포부의 변인을 본 모형의 직업포부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의 因果的 영향력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因果模型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因果模型

여기서 因果模型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① 父의 교육 ② 父의 직업 ③ 소득 등을 합하여 S.E.S.(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설정했고 교사, 친구, 선배의 영향등을 포함하여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으로 설정하였다. 성별, 계열 변인은 대표적인 귀속적 요인으로서 전체 因果模型을 성별, 계열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성별, 계열별 에 따른 영향력을 통계 할 수 있으므로, 본 모형에서는 제외시켰다.

위 모형은 각 관련 변인들이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에 직선적(liner), 부가적(additive)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서 구성되었다.

[그림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학업성적, 교육포부는 직업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학업성적, 교육포부등의 媒介변인에 의해 직업포부에 간접적 영향도 미치며,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학업성적, 교육포부, 학업성적은 교육포부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을 통해 직업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 변인 및 因果模型을 토대로 통계적 분석 과정을 통하여 각 관련 요인들간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 道內 고등 학교 학생들의 직업포부 결정에 얼마 만큼의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알아 보기위해 전체별, 성별, 계열별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다.

2. 變因의 測定

1) 職業抱負

직업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지위 성취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모델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홍두승(1982)과 손충기외(1982)에 의한 직업 구분 분류표를 참고 수정하여 직업을 8단계로 구분한뒤 1-8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아울러 직업 포부 측정은 가정 형편 및 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여건

하에서 장래 갖고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 표 III-1 > 직업 분류표

평점	직업구분
1	일당 노동 종사자, 일당 노무자
2	안내원, 청소부, 이·미용사, 수위, 목축업자, 어부, 요리사, 가정부, 공장 직공, 행상, 1,500명미만 농지 경작자
3	사진사, 외판원, 점원, 보험 증권 거래인, 복덕방, 운송·통신업 종사자, 기능공, 3,000명 농지 경작자
4	예술가, 연예인, 체육인, 회사경리사원, 경찰, 소방원, 요식·숙박업경영자, 디자이너, 실내장식가, 자영상인, 정부하급공무원, 개인택시 운전자, 철도역장, 간호원, 3,000~6,000명 농지 경작자, 직업군인(하사관급)
5	사회사업가, 정부일반공무원, 은행원, 회사 사무직 사원, 성직자, 작가, 언론인, 측량기사, 제도사, 항해사, 토목기술공, 기계기술공, 스텐더디스, 판매감독자
6	회사,관리직,사원, 연구원, 교사, 정부 관리직 공무원(과장급), 건축가, 설계사, 6,000명 이상 농지 경작자, 직업군인(영관급), 조종사, 약사
7	변호사, 판·검사, 의사, 교수, 회계사, 직업군인(장성급), 대기업체 고급 관리직, 외교관, 정치가, 대규모 농장 경영자
8	대기업주, 정부 고위 관리(장·차관급 이상)

2) 教育抱負

현실적 여건하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희망하는 교육정도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에서 박사, 해외 유학까지의 교육 수준을 5단

계로 분류하였다.

< 표Ⅲ-2 > 교육 포부 수준

교육 포부 수준	평 점
고등학교 졸업 종료	1
2년제 대학(전문대) 진학	2
4년제 대학 진학	3
대학원(석사)	4
박사과정, 해외유학	5

3) 學業成績

학업성적은 2학년 2학기말 성적을 중심으로 학급에서의 석차를 측정하여 5단계로 분류하였으며, 학생수는 50명 을 기준하였다.

< 표Ⅲ-3 > 학업 성적 수준

구 분	평 점
하위 81% 이상 (49등 이하)	1
61~80% (37~48등)	2
41~60% (25~36등)	3
21~40% (13~24등)	4
상위 20% 이하 (1~12등)	5

4) 의미있는, 他人의 影響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친구 및 선배의 영향 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합하였다.

< 표 III-4 >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정도

구	분	평 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1-3	1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4-6	2
보통이다	7-9	3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10-12	4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13-15	5

5) 系列

학생의 학교 계열에 따라 실업계(1), 일반계(2)로 분류하였다.(Dummy변수)

6) 性別

학생의 성별에 따라 남자(1), 여자(2)로 분류하였다.(Dummy변수)

7) 父의 職業(가장의 직업)

학생의 직업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직업 분류표와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직업분류표」 표 III-1 참조)

8) 父의 教育(아버지 사망시에는 어머니 교육)

김영모(1969)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중퇴인 경우 이전 단계 학교의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취급하여 분류하였다.

< 표 III-5 > 부의 교육 수준

구	분	평 점
무학 및 국민학교 중퇴		1
국민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		2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3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4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중퇴		5
대학원 졸업 (석사)		6
대학원 졸업 (박사)		7

9) 家庭의 經濟水準

가정의 경제 수준은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을 7단계로 분류하였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한 금액임)

< 표 III-6 > 가정의 경제 수준(수입)

구	분	평 점
50만 원 미 만		1
50-80만 원 미 만		2
80-110만 원 미 만		3
110-140만 원 미 만		4
140-170만 원 미 만		5
170-200만 원 미 만		6
200만 원 이상		7

10) 家庭의 社會·經濟的 地位(socio-economic status:SES), 父의 職業, 父의 教育, 수입(가정의 경제수준)의 측정치를 가중치없이 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로 4단계로 분류하였다.

< 표Ⅲ-7 >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수준

구 분	평 점
1 - 5 점	(하)
6 - 10 점	(중하)
11 - 15 점	(중상)
17 - 22 점	(상)

11) 調查對象

본 연구는 실제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하여 제주도 소재 실업계 및 일반계, 남·여별 7개 고등학교에서 총 1080명을 유층 무선 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중 부실한 조사지 90부가 제외되고 990명에 관한 조사지가 통계처리 되었다.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그 이유는 이들의 연령층의 Ginzberg(1969)의 직업 발달 이론에 의하면 잠정적 선택단계에 속하고 또한 실제의 직업 세계로 들어가기 전의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2학년 학생들은 비교적 고등학교 학생 집단의 전체적 성격을 잘 대표할 수 있고 직업포부가 대체로 구체화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황정규1979). 통계 처리된 조사 대상은 < 표Ⅲ-8 >와 같다.

< 표Ⅲ-8 > 조사 대상

성 별 \ 계 열	일 반 계	실 업 계	계
남	328	230	558
여	262	170	432
계	590	400	990

12) 資料處理 및 分析

질문지는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학생과 무성의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료 처리에 포함된 대상 학생수는 총 99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제주대학교의 전산실에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방법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되었다.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컴퓨터로 하여금 투입된 자료를 그대로 기록(listing)하게 한 다음 부호화(coding)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은 명명척도(命名尺度)를 제외하고는 각 문항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통계처리하였다.

통계처리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각 독립 변인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 차이를 알아보고 이어서 변인들간의 상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 관계(Simple Correlation)를 분석하고 종속 변인에 대한 각 독립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하여 얻은 표준화 회귀 분석(β 계수)에 의해 행로 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한편 회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각 독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편리한 단계식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因果分析 후에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다시 원인적 상관과 비원인적 상관으로 분석하는 상관도 분할을 수행하였다.

IV. 研究 結果 및 解釋

본 연구에서 먼저 선정된 각 독립 변인별로 직업포부의 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살펴보고 이어서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변인들의 상관 정도를 파악 하였다. 그리고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 정도를 보기 위해 단계식 회귀 분석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因果模型에 의해 행로 분석을 하였다.

1. 各 變因別에 따른 職業抱負의 水準의 差異分析

1) 各 獨立變因別 職業抱負水準의 差異比較分析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각 독립 변인의 수준에 따라 직업포부의 수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하였다.

<표 IV-1>를 보면 학교 계열에 따라서 직업포부는 일반계(6.34)는 실업계(5.24) 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여자(5.80)보다는 남자(5.97)가 조금 높은 직업포부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학생의 생활 배경 중에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SESES)변인만을 독립 변인 으로 떼어내어 직업포부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父의교육 수준의 높아질수록, 가정의 직업 위신의 높아질수록, 또한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도 수입의 많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차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서 父의 교육 수준, 父의 직업, 가정의 수입, 3개 변인을 묶어서 하나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ES)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직업포부 수준 차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학생의 능력 요인별 직업포부 수준의 분포를 보면 학생의 학업성적 교육포부가 높아질수록 직업포부도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Ⅳ-1 > 각 독립 변인의 직업 포부 수준 차

전체:N=990

독립변인		측정치	평 균	표준편차	사 례 수	F
계 열	실 업 계		5.24	.83	400	1.69***
	일 반 계		6.34	1.09	590	
성 별	남		5.97	1.19	558	1.30***
	여		5.80	1.04	432	
부의 교육	1		5.76	1.33	47	9.01***
	2		5.58	1.14	170	
	3		5.68	1.02	222	
	4		6.03	1.11	388	
	5		6.12	1.12	132	
	6		6.61	.98	26	
	7		7.40	.54	5	
부의 직업	2		5.17	1.18	52	11.18***
	3		5.49	1.15	131	
	4		5.94	1.05	168	
	5		5.92	1.14	319	
	6		6.17	.98	167	
	7		6.09	1.10	119	
	8		7.14	1.02	14	
수 입	1		5.36	1.15	76	6.42***
	2		5.60	.98	115	
	3		5.90	1.14	202	
	4		5.87	1.14	220	
	5		6.15	1.21	152	
	6		6.09	.93	95	
	7		6.05	1.11	130	
가 정 의 사 회·경 제 적 지 위	하		5.12	1.47	29	17.24***
	중하		5.60	1.11	278	
	중상		6.01	1.09	570	
	상		6.23	1.07	113	
학 업 성 적	1		5.08	.91	35	61.34***
	2		5.28	.92	165	
	3		5.50	.89	237	
	4		6.04	1.15	283	
	5		6.58	1.08	270	
교 육 포 부	1		4.75	.91	44	118.55***
	2		5.18	.85	312	
	3		6.16	.97	512	
	4		6.95	.91	69	
	5		7.15	1.02	53	

*** P < .001

전체:N=990

독립변인	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교사의 영향	1	5.80	1.13	226	12.52***
	2	5.74	1.09	299	
	3	5.73	1.16	207	
	4	6.36	1.04	214	
	5	5.90	1.09	44	
동료의 영향	1	5.89	.99	135	1.26
	2	6.04	1.13	211	
	3	5.87	1.11	232	
	4	5.82	1.19	378	
	5	5.97	1.08	34	
선배	1	5.93	1.14	266	1.10
	2	5.94	1.05	303	
	3	5.90	1.24	200	
	4	5.76	1.11	202	
	5	6.15	1.06	19	

*** P < .001



다음은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교사, 친구, 선배로 제한하여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교사의 영향력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친구 및 선배의 영향력은 어떠한 경향성도 보이고 있지 않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친구, 선배의 영향 변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각 수준에 따라 직업포부의 수준간에(P<.001)의미있는 수준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全體別에 따른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影響分析

1)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相關關係

<표IV-2> 전체별 각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간에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포부를 중심으로 하여 볼때,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P < .001$) 의미있는 정적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변인은 교육포부($r=.55$)이며, 그 다음이 학업성적($r=.43$), SES($r=.21$)의 순위로 ($P < .001$)의 의미있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IV-2 > 직업 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단순 상관 전체:N=990

변인	X1	X2	X3	X4	X5
X1 SES	1.00				
X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7***	1.00			
X3 (학업성적)	.09***	-	1.00		
X4 (교육포부)	.36***	-.12***	.27***	1.00	
X5 (직업포부)	.21***	.02	.43***	.55***	1.00
평균	2.27	2.94	3.59	2.77	5.90
표준편차	.57	.83	1.15	.85	1.13

*** $P < .001$

2)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回歸分析

전체 집단의 경우<표IV-3>에서 직업포부에 대하여 관련 변인이 설명하는 총전체 변량의 40%를 설명하고 있으며,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변인만이 추가적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Beta)은 교육포부($P=46$)가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며 다음은 학업성적($P=30$) 반면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08$)과 SES($P=03$)은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포부에 대해서는 SES, 학업성적,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중 SES.(P=.13), 학업성적(P=.06)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포부에 대해서는 SES.(P=.33)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다음은 학업성적(P=.24),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06)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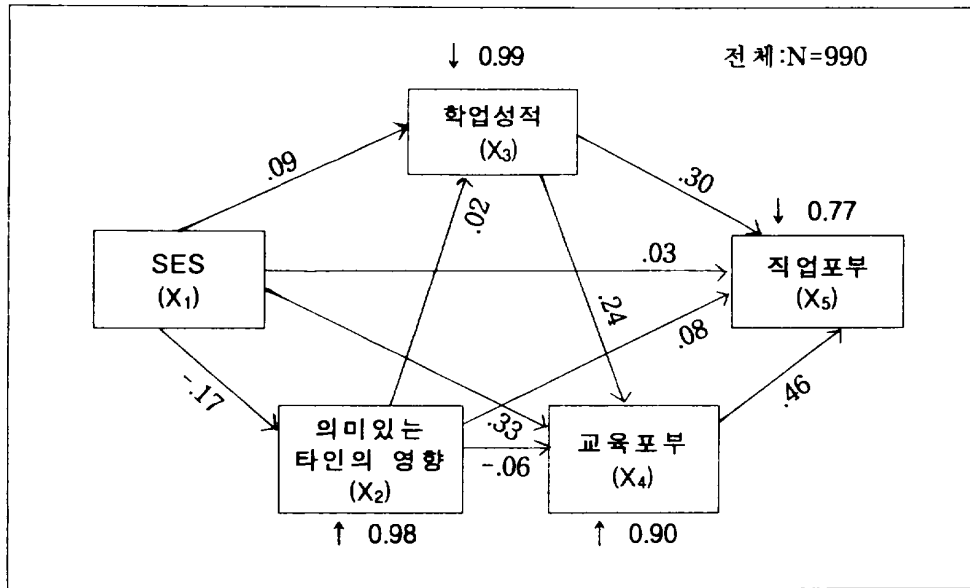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SES(P=.09), 의미있는 타인 영향(P=.02)순으로 나타났고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SES가 2%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 분석의 결과로 본 연구의 因果模型(Path diagram)을 통한 각 변인간의 因果關係는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에 나타난 행로 계수 (Path coefficient)는 앞의 <표 IV-3>에서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로 얻어진 표준화 회귀 계수(Beta)와 같은 값이다. 또한 잔여변량(residual Path Coefficient)은 $\sqrt{1-R^2}$ 에 의해서 얻어진 값이다.

< 표 IV-3 > 직업 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 전체:N=990

종속변수	독립변인	R	R ²	R추가	r	Beta	F
직업포부	SES	.21	.04	.04	.21	.03	49.5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22	.05	-	.02	.08	26.84***
	학업성적	.47	.22	.17	.43	.30	95.66***
	교육포부	.63	.40	.17	.55	.46	165.40***
교육포부	SES	.36	.13	.13	.36	.33	152.37***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37	.13	-	-.12	-.06	78.54***
	학업성적	.44	.19	.06	.27	.24	80.81***
학업성적	SES	.09	-	-	.09	.09	8.9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09	-	-	-	.02	4.7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SES	.17	.02	.02	-.17	-.17	29.64**

*** P < .001 ** P < .01



[그림 IV-1]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그림 IV-1]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살펴보면, SES,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학업성적, 교육포부의 4개 변인으로 설명되는 총 변량은(40%)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때 학생들의 직업포부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육포부($P_{45}=.46$)이며 다음이 학업성적($P_{35}=.3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_{25}=.08$), SES($P_{15}=.03$)의 순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에 SES 변인은 직업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학업성적, 교육포부등 관련 媒介 변인들과 행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볼때 직업포부에 대한 SES 영향은 직접적이라기 보다 간접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학업성적→교육포부→직업포부 또는 교육포부→직업포부의 행로를 통해서, 학

업성적은 교육포부→직업포부등, 이러한 행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교육포부는 각 관련 독립 변인의 媒介的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자체 직접적 영향을 포함하여 직업포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P_{45}=.46$)을 주는 요인이며, 학업성적도 각 독립 변인에 의한 복합된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독립 변인들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잔여변량(residual Path Coefficient)은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0.98), 학업성적(0.99), 교육포부(0.90), 직업포부가(0.77)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변인들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살펴보면, 직업포부의 관련 변인들은 직접적 영향 외에 다양한 행로를 통해 직업포부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표 IV-4>과 같다.

상관도 분할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작성 되었다. 단순 상관은 단순 상관 계수(r)의 값이고 원인적 상관중에서 직접상관은 표준화 회귀계수(β)값과 같다. 간접적 상관은 媒介變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포부에 대한 SES는 학업성적,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교육포부 변인등을 媒介로하여 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SES 변인의 간접적 영향력은 $P_{12} * P_{24} * P_{45} + P_{13} * P_{35} + P_{12} * P_{23} * P_{34} * P_{45} + P_{13} * P_{34} * P_{45} + P_{14} * P_{45} + P_{12} * P_{25} = .17$, 또한 학업성적의 간접적 영향은 $P_{34} * P_{45} = .11$ 로 나타난다. 비원인적 상관이란 두 변인간의 상관이 다른 제 3의 요인에 의한 공통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사 상관을 의미하며 이는 표에서 $R - (A+B)$ 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다.

<표 IV-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직업포부 결정에 관련된 전체 변인들의 상관 관계를 보면 원인적인 관계와 비원인적인 관계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

원인적 관계이며 원인적 관계에서도 SES는 간접적 영향($r=.17$)이 직접적 영향($r=.03$)보다 크게 미치고 있고, 그외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r=.08$) 과 교육포부($r=.46$)는 직업포부에 간접적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고 직접적 영향만 미치고있고, 학업성적은 직접적($r=.30$)간접적($r=.11$)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IV-4 >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 전체:N=990

변 인	단순상관(r)	원 인 적 상 관			비원인적 상관
		직접(A)	간접(B)	전체(A+B)	
SES	.21	.03	.17	.20	.0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02	.08	-	.08	-.06
학업성적	.43	.30	.11	.41	.02
교육포부	.55	.46	-	.46	.09

3. 性別에 다른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影響分析.

1)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相關關係

<표IV-5>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 남자:N=558

변 인	X1	X2	X3	X4	X5
X1 SES	1.00				
X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3***	1.00			
X3 (학업성적)	-.01	0.04	1.00		
X4 (교육포부)	.32***	-.03	.29***	1.00	
X5 (직업포부)	.23***	.08**	.45***	.61***	1.00
평균	2.74	3.00	3.46	2.78	5.97
표준편차	.69	.79	1.18	.83	1.19

*** P < .001 ** < .01

< 표 IV-6 >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

여자:N=432

변인	X1	X2	X3	X4	X5
X1 SES	1.00				
X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20***	1.00			
X3 (학업성적)	.24***	-.02	1.00		
X4 (교육포부)	.42**	-.22	.26***	1.00	
X5 (직업포부)	.21***	-.07	.45***	.47***	1.00
평균	2.81	2.87	3.75	2.75	5.80
표준편차	.65	.89	1.09	.87	1.04

** P < .001 * P < .01

<표 IV-5>, <표 IV-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즉, 남자의 경우 직업포부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교육포부($r=.61$)이며 다음으로 학업성적($r=.45$) SES($r=.23$)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r=.08$)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첫째 교육포부($r=.47$) 학업성적($r=.45$) SES($r=.2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의미없는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모든 변인 간에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귀속적인 배경 변인과 성취적 능력 변인 모두가 높은, 의미있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回歸分析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자와 여자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다음의 <표 IV-7>, <표 IV-8>에 나타난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먼저 직업포부에 대하여 관련 변인들이 설명하는 총 천체 변량은 남자(47%)가 여자(34%)에 비해 높은 예언 변량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남자인 경우 교육포부 (P=.50)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업성적(P=.3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P=.10) SES(P=.08) 순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육포부(P=.40)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학업성적은 남자(P=.30)에 비해 여자 (P=.3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인 경우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에도 추가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학업성 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남자의 경우 SES, 의미있는 타 인 영향의 모두가 의미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두 변 인 모두가 영향을 미치며 SES(P=.05)가 추가 설명도 하고 있다.

<표 IV-7>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 남자:N=558

종속변수	독립변인	R	R ²	R추가	r	Beta	F
직업포부	SES	.23	.05	.05	.23	.08	31.63***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26	.06	.01	.08	.10	20.34***
	학업성적	.52	.27	.20	.45	.30	68.48***
	교육포부	.68	.47	.20	.61	.50	124.80***
교육포부	SES	.32	.10	.10	.32	.32	64.54***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32	.10	-	-.03	-	32.25***
	학업성적	.43	.19	.09	.29	.29	44.04***
학업성적	SES	.01	-	-	-.01	-	.1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04	-	-	.04	.04	.6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SES	.13	.01	.01	-.13	-.13	10.60***

*** P < .001

<표 IV-8>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

여자:N=432

종속변수	독립변인	R	R ²	R추가	r	Beta	F
직업포부	SES	.21	.04	.04	.21	-.04	19.99***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21	.04	-	-.07	.01	10.16***
	학업성적	.46	.21	.17	.45	.35	39.43***
	교육포부	.58	.34	.12	.47	.40	55.47***
교육포부	SES	.42	.18	.18	.42	.35	95.59***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44	.20	.02	-.22	-.14	53.84***
	학업성적	.48	.23	.03	.26	.17	42.79***
학업성적	SES	.24	.05	.05	.24	.24	26.48***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24	.05	-	-.02	.02	13.4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SES	.20	.04	.04	-.20	-.20	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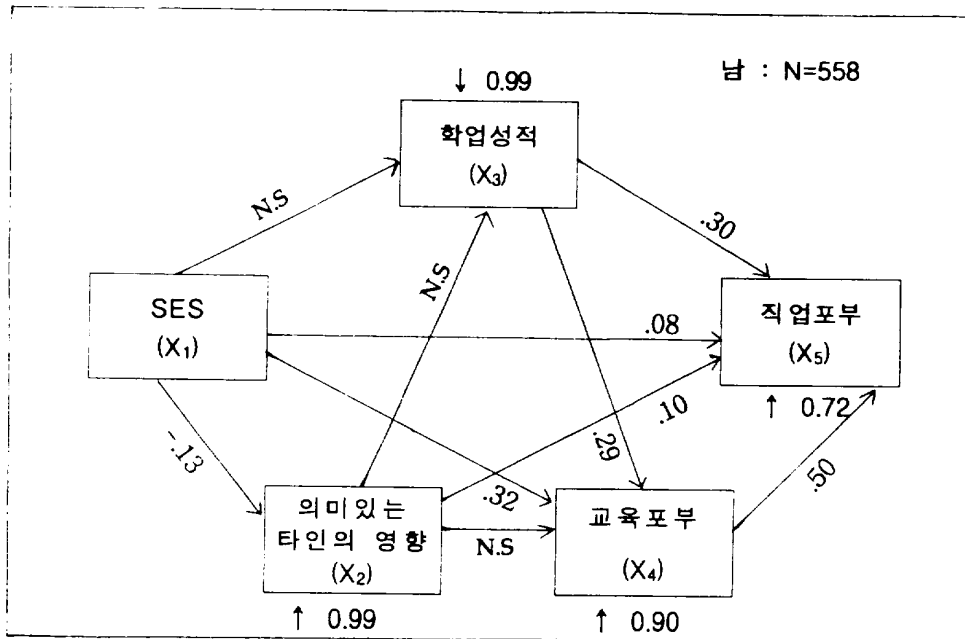
*** P < .00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SES도 남자(P=.13)에 비해 여자(P=.20)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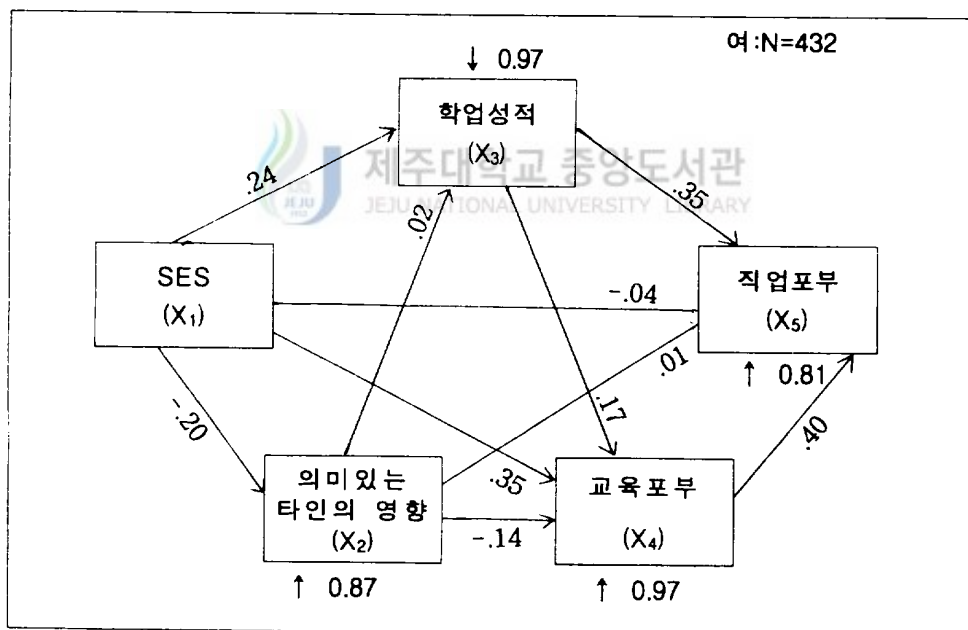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예상 외로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귀속적 배경 변인인 SES가 교육포부(P=.35), 학업성적(P=.24) 등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는 놀랄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가 가지는 학력 사회 성격이나 높은 교육 수준 등에 의해 성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자에게도 성취적 능력 요인들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더 증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시사 받을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因果模型에 의해서 因果分析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IV-2],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2]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그림 IV-3]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그림 IV-2]와 [그림 IV-3]과의 남녀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직업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SES 변인은 남자($P_{15}=-.08$)와 여자($P_{15}=-.04$)가 약간 차이를 보이며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변인은 남자($P_{25}=.10$)가 여자($P_{25}=.01$)에 비해 약간 높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업성적 변인은 남자($P_{35}=.30$)가 여자($P_{35}=.35$)에 비해 낮게 영향을 미치며, 교육포부 변인은 남자($P_{45}=.50$)가 여자($P_{45}=.40$)에 비해 직업포부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 독립 변인들간에 영향력에 있어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직접 상관과 간접 상관으로 분할하여 분석하면 <표 IV-9>, <표 IV-10>와 같다.

<표 IV-9>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 남자:N=558

변인	단순상관(r)	원인적 상관			비원인적 상관
		직접(A)	간접(B)	전체(A+B)	
SES	.23	.08	.03	.11	.1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08	.10	-	.10	-.02
학업성적	.45	.30	.14	.44	.01
교육포부	.61	.50	-	.50	.11

<표 IV-10>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 여자:N=432

변인	단순상관(r)	원인적 상관			비원인적 상관
		직접(A)	간접(B)	전체(A+B)	
SES	.21	-.04	.24	.20	.0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07	.01	-.04	-.03	-.04
학업성적	.45	.35	.07	.42	.03
교육포부	.47	.40	-	.40	.07

직업포부에 대한 SES 변인인 남자의 경우 간접적 영향($r=.03$)보다 직접적 영향($r=.08$)이 높게 나타나며, 원인적 관계보다 비원인적 관계의 단순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SES가 직접적 영향($-.04$)보다 간접적 영향($r=.24$)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비원인적 관계보다 원인적 관계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에 있어서 여자의 경우 간접적 영향($-.04$)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원인적 상관보다 비원인적 상관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외 학업성적과 교육포부 모두 직접적 영향이 높고 비원인적 상관보다 원인적 상관이 남·녀 공히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녀 모두가 직업포부 결정에 있어서는 학업성적, 교육포부와 같은 성취적 개인 능력에 의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같은 귀속적 배경요인의 영향에 있어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가 직접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간접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系列에 따른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影響分析.

1)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相關關係

<표IV-11> <표IV-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직업포부를 설명하는 관련 변인들의 계열에 따라 그 상대적인 상관 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업계와 일반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IV-11 >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 실업계:N=400

변인	X1	X2	X3	X4	X5
X1 SES	1.00				
X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1**	1.00			
X3 (학업성적)	.02	.07	1.00		
X4 (교육포부)	.24***	-.07	.21***	1.00	
X5 (직업포부)	.09*	.05	.47***	.29***	1.00
평균	2.55	3.07	3.60	2.13	5.24
표준편차	.66	.82	1.13	.57	.83

*** P < .001 ** P < .01 * P < 0.5

< 표IV-12 >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단순 상관 일반계:N=590

변인	X1	X2	X3	X4	X5
X1 SES	1.00				
X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6***	1.00			
X3 (학업성적)	.15***	-.03	1.00		
X4 (교육포부)	.28***	-.05	.42***	1.00	
X5 (직업포부)	.11**	.11**	.51***	.40***	1.00
평균	2.99	2.86	3.58	3.20	6.34
표준편차	.64	.83	1.16	.72	1.09

*** P < .001 ** P < .01

직업포부에 관련된 높은 상관 관계 순위를 보면 실업계는 학업성적(r=.47), 교육포부(r=.29), SES(r=.09) 순으로 모두가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의미없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계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학업성적 (r=.51) 교육포부(r=.40) SES(r=.1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r=.11)순으로 모두가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별로 비교해 본 결과 일반계가 실업계보다 상

대적으로 모든 변인들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므로써 일반계는 실업계보다 성취적 능력 변인 이외에 귀속적 배경 변인에 의해서도 높은 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2) 職業抱負에 關聯된 變因들의 回歸分析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계열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다음의 <표IV-13>, <표IV-14>에 나타난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표IV-13 >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 실업계:N=400

종속변수	독립변인	R	R ²	R추가	r	Beta	F
직업포부	SES	.09	-	-	.09	.04	3.69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1	.01	-	.05	.04	2.75
	학업성적	.47	.23	.23	.47	.42	39.46***
	교육포부	.51	.26	.26	.29	.19	35.70***
교육포부	SES	.24	.06	.06	.24	.23	26.14***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25	.06	-	-.07	-.06	13.48***
	학업성적	.33	.11	.05	.21	.21	16.31***
학업성적	SES	.02	-	-	.02	.03	.2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07	.01	.01	.07	.07	1.27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SES	.11	.01	.01	-.11	-.11	5.48*

*** P < .001, ** P < .01, * P < .05

< 표IV-14 >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회귀 분석 결과

일반계:N=590

종속변수	독립변인	R	R ²	R추가	r	Beta	F
직업포부	SES	.11	.01	.01	.11	.01	8.27***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8	.03	.01	.11	.14	9.90***
	학업성적	.54	.29	.25	.51	.42	80.69***
	교육포부	.57	.33	.04	.40	.22	72.98***
교육포부	SES	.28	.07	.07	.28	.22	50.75***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28	.07	-	-.05	-	25.35***
	학업성적	.48	.23	.16	.42	.39	59.09***
학업성적	SES	.15	.02	.02	.15	.14	13.7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5	.02	-	-.03	-.01	6.89***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SES	.16	.02	.02	-.16	-.16	16.23***

*** P < .001

실업계의 경우를 보면 직업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P=.42) 교육포부(P=.19)순으로 나타났고, SES,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의미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계 경우에는 첫째 학업성적(P=.42)의 영향이 가장크고, 다음으로 교육포부(P=.2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14), SES(P=.01)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실업계의 경우 SES(P=.23)가 가장 높고, 다음은 학업성적(P=.2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06)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계의 경우 실업계와 달리 학업성적(P=.39)이 가장 높고 다음은 SES(P=.22) 순으로 나타났고,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변인의 영향력은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도 실업계의 경우 SES(P=.03),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07)등 모두가 학업성적에 영향력은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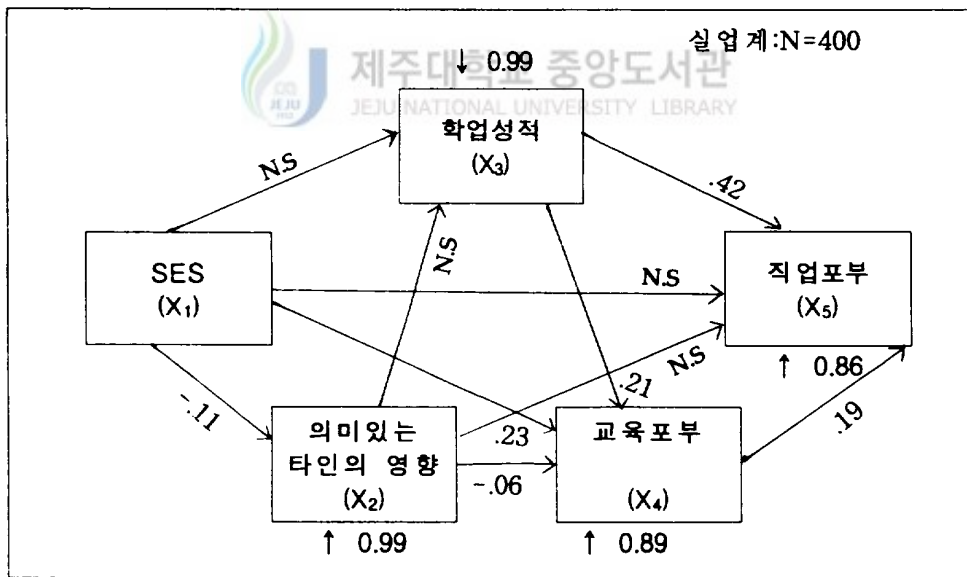
반계인 경우 SES(P=.14)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01)등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실업계보다 일반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이 직업포부를 설명해 주는 총 전체변량은 일반계(33%)가 실업계(2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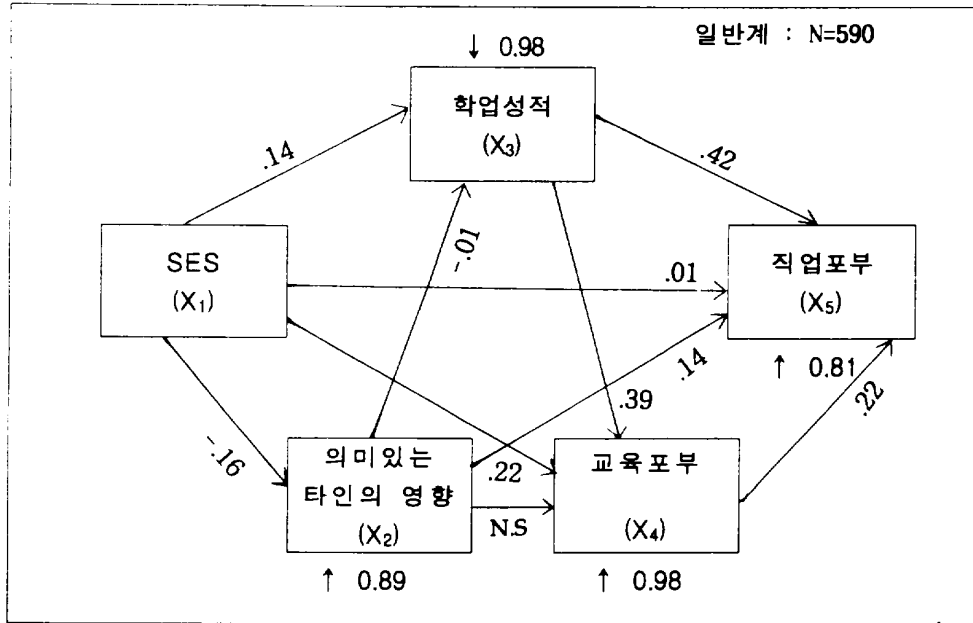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장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있어서 실업계인 경우 주로 성취적 능력 변인에 의해 좌우되며, 일반계인 경우는 성취적 능력 변인뿐만 아니라 귀속적 배경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계는 실업계보다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에 의한 예언 변량이 훨씬 더 크다. 이는 일반계의 경우 이들 관련 변인들이 직업포부를 더욱 의미있게 예언해 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因果模型에 의해서 因果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V-4]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그림 IV-5] 직업포부에 관련된 변인들의 因果模型

[그림 IV-4],[그림 IV-5]의 실업계와 일반계를 비교하여 보면 계열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P_{35}=.42$)와 일반계($P_{35}=.42$)모두 공통적으로 학업성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반계의 경우, 교육포부($P_{45}=.22$), 의미있는, 타인 영향($P_{25}=.14$), SES($P_{15}=.01$)와 같은 성취적 능력변인 외 귀속적 배경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실업계의 경우는 학업성적($P_{35}=.42$), 교육포부($P_{45}=.19$)등과 같은 성취적 능력 변인들만이 영향을 주고 있고, SES와 의미있는 타인 영향은 직업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보다 일반계가 각 SES,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학업성적, 교육포부등의 매개 변인들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이 因果模型에 입각해서 계열별로 영향 관계

를 분할하고,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IV-15>, <표 IV-16>에 보는 바와 같이 직업포부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에도 계열간에 특징있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V-15 >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 실업계:N=400

변 인	단순상관(r)	원 인 적 상 관			비원인적 상관
		직접(A)	간접(B)	전체(A+B)	
S E S	.09	-	.04	.04	.05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05	-	-.01	-.01	.06
학 업 성 적	.47	.42	.03	.45	.02
교 육 포 부	.29	.19	-	.19	.10

< 표 IV-16 >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상관도 분할 일반계:N=590

변 인	단순상관(r)	원 인 적 상 관			비원인적 상관
		직접(A)	간접(B)	전체(A+B)	
S E S	.11	.01	.09	.10	.0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11	.14	-.01	.13	-.02
학 업 성 적	.51	.42	.08	.50	.01
교 육 포 부	.40	.22	-	.22	.18

먼저 실업계의 경우, SES,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고, 원인적 상관도보다 비원인적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r=.42$) 교육포부($r=.19$)는 간접적인 영향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비원인적 상관도보다 원인적 상관도

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의 경우에는, SES($r=.09$)는 직접적 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나머지 의미있는 타인영향($r=.14$) 학업성적($r=.42$) 교육포부($r=.22$)변인들은 간접적 영향보다 직접적 영향이 매우 높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의 비원인적 상관도보다 원인적 상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포부 관련 변인들이 직업포부에 직접적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계보다 일반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실업계, 일반계 모두 직업포부에 대해서 성취적 능력 변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반면, 일반계의 경우에는 귀속적 배경 변인에 의해서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적 지위를 대표하는 特定指標라고 할 때 개인이 어떠한 직업을 획득하느냐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된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道內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관계를 釐明하여 직업포부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얼마 만큼 개인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 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國內·外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1)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2)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3) 학업성적 4) 교육포부 등의 관련 변인을 선정 하였다.

여기서 父의 교육, 父의 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수입)을 포함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으로 설정했고, 교사, 친구, 선배등을 묶어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기존의 선행 연구 및 논리적,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들 변인간의 因果關係를 나타내 주는 因果模型(Causal model)을 구성한 후 이 모형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이를 전체집단과 성별, 계열별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첫째,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각 변인별 직업포부 수준이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위 관련 요인 간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위 관련 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위 관련 요인 간의 상호 因果關係는 어떠한가?

다섯째, 분석 대상의 특성에 따라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일반계(590명) 및 실업계(400명) 남.여별 7개 고등학교에서 부실한 조사지를 제외한 총 990매의 질문지를 통계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제주대학교 전산실에서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F검증, 상관관계 (Simple Correlation)분석,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행로 분석(Path analysis), 상관도 분할분석 등의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각 변인별 직업포부 수준 차이에 있어서는 일반계(1.09)가 실업계(0.83)보다, 남자(1.19)가 여자(1.04)보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 교육포부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업포부 수준 차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을 분류해 본 결과 교사의 영향만이($p<.001$)의미 있는 수준차를 보였고, 친구, 선배는 의미없는 수준차를 보였다.

둘째, 직업포부 관련 요인간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는,

(1) 전체집단인 경우.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변인만을 제외한 교육포부 ($p=55$), 학업성적($p=43$), SES($p=21$)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p<.001$)의의 있는 정적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

(2) 성별 비교인 경우. 남자의 경우 직업포부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교육포부 ($r=.61$), 학업성적($r=.45$), SES($r=.23$),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

($r=.08$) 순으로 모두가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자인 경우 교육포부($r=.47$) 학업성적($r=.45$), SES($r=.21$) 등 ($p<.001$)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의미없는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3) 계열별 비교에 있어서는 실업계의 경우, 학업성적($r=.47$), 교육포부($r=.29$), SES($r=.09$)순으로($p<.001$) 의미있는 상관 관계로 나타났고,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인 경우 학업성적($r=.51$), 교육포부($r=.40$), SES($r=.11$),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r=.11$) 순으로 실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직업포부 관련 요인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를 비교해 보면,

(1) 전체 집단인 경우 직업포부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설명 총 전체 변량은 40%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포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Beta)은 교육포부($p=.46$), 학업성적($p=.30$),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p=.08$), SES($p=.03$)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성별 비교인 경우 직업포부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설명 총 전체 변량은 남자(47%),가 여자(34%)에 비해 높은 變量 변량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남녀 모두 직업포부 관련 변인중, 교육포부에 의한 영향력이 남자($p=.50$), 여자($p=.40$)모두 가장 크다. 반면 학업성적은 남자($p=.30$)에 비해 여자($p=.35$)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이의 관련 변인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직업포부에 미치고 있다.

(3) 계열별 비교에 있어서는 직업포부 관련 요인들의 설명 총 전체 변량은 실업계(26%)가 일반계(33%)보다 훨씬 적으며, 직업포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Beta)에 있어서도 실업계의 경우 학업성적($p=.42$), 교육포부($p=.19$) 순으로 나타났고, SES 와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은 의미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계의 경우에는 학업성적($p=.42$), 다음으로 교육포부($p=.22$),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p=14$), SES($p=01$)의 순으로 실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직업포부 관련 요인간의 상호 因果關係에 있어서는,

(1) 전체 집단의 경우 직업포부 관련 요인들은 그 자체의 직접적 영향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업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ES($r=17$)는 간접적 영향이 직접적 영향보다 크게 미치고 있고, 학업성적은 간접적 영향($r=.11$)보다 직접적 영향($r=.30$)을 크게 미치고 있다.

그외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r=.08$), 교육포부($r=.46$)는 직업포부에 간접적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고 직접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원인적 관계가 비원인적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상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성별 비교인 경우, 남자는 SES 변인의 간접적 영향($r=.03$)보다 직접적 영향($r=.08$)을 높게 미치며 원인적 관계($r=.11$)보다 비원인적 관계($r=.12$)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SES 변인의 직접적 영향($r=-.04$)보다 간접적 영향($r=.24$)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원인적 관계($r=0.1$)보다 원인적 관계($r=.20$)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이 여자인 경우 간접적 영향($r=-.04$)은 남자에 비해 높고, 이외 학업성적과 교육포부는 남자($r=.30$, $r=.50$), 여자($r=.35$, $r=.40$) 공히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계열별 비교에 있어서는 계열간에 특징있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의 경우, SES($r=.04$)와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r=-.01$)의 변인은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는 반면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고 원인적 상관도 보다 비원인적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 학업성적은 간접적 영향($r=.03$)보다 직접적 영향($r=.42$)이 크게 미치고 있고, 교육포부는 직접적($r=.19$)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 일반계인 경우 SES는 간접적($r=.09$) 영향

이외에도 직접적인($r=.01$)영향도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r=.14$), 학업성적($r=.42$), 교육포부($r=.22$)변인들은 간접적 영향보다 직접적 영향이 매우 높게 미치고 있다. 그리고 비원인적 상관보다 원인적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2. 結 論 및 提 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독립 변인별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일반계가 실업계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아울러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 교육포부 수준 차가 높아질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을 분류해 본 결과 교사의 영향만이 의미있는 수준 차이를 보였고 친구, 선배는 무의미한 수준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직업포부 관련 요인간의 상관 관계에서는 모든 요인 간에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실업계보다 일반계가 귀속적 배경 요인 및 성취적 능력 요인 모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직업포부 관련 요인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일반계가 실업계보다, 개인의 능력으로 대표하는 성취적 요인등이 가정 배경을 대표되는 귀속적 요인보다 직업포부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직업포부 관련 요인들의 직업포부를 설명해 주는 총 전체 변량도 실업계보다 일반계가,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豫言 變량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직업포부 관련 요인간의 상호 因果關係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성취적 능력 변인들의 직업포부 결정에 직접적으로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귀속적 배경 요인에 의해서도 여자는 간접적 영향을, 남자는 직접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업계보다 일반계가, 직업포부 관련 媒介 변인들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직업포부 관련 요인들의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학업성적, 교육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며, 여자보다 남자가, 실업계보다 일반계가, 직업포부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인은 직업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직업포부 관련 媒介 변인들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귀속적 배경 요인인 SES가 개인의 직업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성취적 능력 요인들을 媒介로 한 간접적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여자의 경우, 귀속적 배경요인인 SES가 학업성적, 교육포부에 남자보다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가 과거와는 달리 성 차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여자에게도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관련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현섭(1976)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미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願望은 귀속적 배경 요인(SES)에 의해 절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또한 차윤경(1983)도 고등교육 기회 획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귀속적 배경 요인(SES)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기회 개방 및 사회적 보상이 보장되는 사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이 선행 연구들과 상반된 본 연구 결과로써, 道內 고등

학교 학생들의 직업포부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귀속적인 배경 요인인 SES 영향보다 개인의 성취적 능력 요인들인 학업성적, 교육포부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道內 고교생들은 성차별 없이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결국 미래의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됨을 강력히 示唆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 사회가 높은 고등교육 수준에 의해 미래의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때, 대부분 고교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은 대학 수준의 학력을 요하는 직업의 세계가 전체 직업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때, 고학력 인플레이 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받은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 할 때는 심리적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로 지도 교육방향 모색이 시급한데 앞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 지도 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교 재학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이상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직업포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와 효과적인 進路(職業)指導 방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진로 설계는 막연히 시대의 추세에 편승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 설계를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계획하게 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에 알맞는 진로 지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에서는 학벌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가 없어져야 할 것이

며, 반드시 고학력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못한 변인에 의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연구 모형의 개발과 새로운 변인의 측정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보다 발전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고형일,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포부를 결정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의 탐색”,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8.
- 구봉수, “포부수준과 학업성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14권 3호 p51. 1976.
- 김영모,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을유문화사,
1969.
- 김원중,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김충기,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울:교육과학사, 1987.
- 김충기,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화사. 1989.
- 배천용, “청소년의 초기사회 지위획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8.
- 손충기의,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예비연구”,
서울:한국해동과학연구소, 1982.
- 이임순, “여고생의 직업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이재분,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관한 연
구”,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6.
- 이정근, “진로지도의 실제”, 성화사, 1988.
- 이종재외, “한국 초.중학교 학생의 특성과 학업성취수준”,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78.
- 조문현, “한국 고등학생의 진로계획 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2.
- 차운경, “고등교육 기회 획득의 결정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 최현섭, “청소년의 미래지위에 대한 원망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6.
- 허철수, “고교생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6
- 홍두승,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회편, 1982.
- 황정규, “한국학생의 의식구조.차이와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PP.65-67. 1979.
- 홍준표의 4인, “중학교에서의 생활지도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1978.
- Alexander, K.L. and Eckland B.K., “Sex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39, 1974.
- Alexander, K.L. et al, “Curriculum Tracking and Educational Stratification: Some Further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8, 1978.
- Blau, P.M. and Duncan, O.D.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7.
- Duncan, O.D., Portes, A. “Peer Influences in Aspiration: a reinterpretation”
in H.M.Blalock Jr, (ed), *Causal Model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The Macmillan press, 1971.
- Frank, J.D. Individual difference in certain aspect of the level of aspir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47 1935. pp119~128,
Kurt Lewin,et.al.op.cit에서 재인용

- Gates, A.I. Educational Psychology(New York:The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Replication and Revision, The Macmillan Co., 1948.
- Ginzberg, E.et al,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press, 1966.
- Haller, A.O. and Portes, A., "Status attainment process ", Sociology of education, Vol.No146, 1973.
- Hansen, D.O. "Age variations in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areer Goals of Brazilian Youth: A cross-cultural Test of the Wisconsin Model",Comparive Education Review Vol.21, 1977. pp.37-50.
- Hyman, "The value system of Different classes", in Be-ndix and Lipset(eds.), op.cit, 1966.
- Keith, W. Prichard Concepts and Theor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Lincoln,Nebraska: Professional Educators Publication, inc, 1973.
- Gurin Patricia "Motivation and Aspiration of Southern Negro College Youth"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Journal of American Sociology, Vol.75, 1975.
- Sewell, W.H. et. al,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chment Process", 1975.
- Sewell, W.H. and Hauser, R.M.,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Newyork: Academic Press, 1975.
- Sewell, W.H. et.al, "The Educations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0, vol.35, pp1014~1027
- Shertzer, B. & Stone, S.C. "Fundamentals of Guidance, Boston: Houghton

-
- Mifflin GO., 1966.
- Shin, K.Z.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Higher Educational Aspirations of Kore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1981
- Stephenson, R.N. "Mobility orientation and stratification of 1000 ninth Grad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62.
- Yogev, A., Determinants of Early Educational Career in Israel: Further Evidence for the sponsorship thesis, Sociology of Education. Vol.54,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SOCIO-PSYCHOLOGICAL FACTORS FOR
DETERMINANTS OF OCCUPATIONAL ASPIRA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Kim, Sung-ik

Major in Administr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ung-K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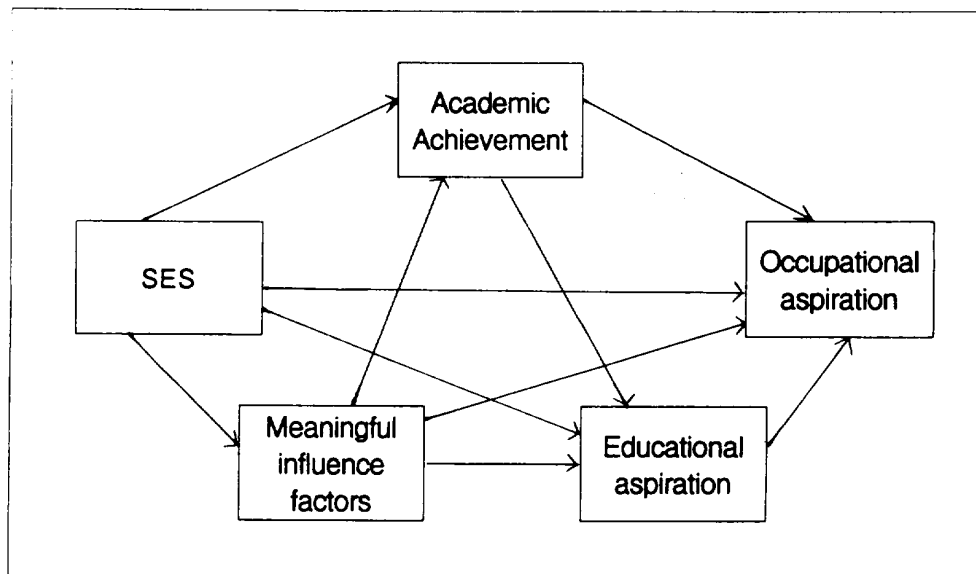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socio-psychological-factors in influences of the determinants on high school students occupational aspiration.

This study bases on the preceding study in the country and draws up casual model represented casual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By this casual model,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solve the following question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Causal Model]

1. What are the differences of level about each variables having influence on the occupational aspiration ?
2. What is the interrelationship among socio-psychological factors in the determinant of the occupational aspiration ?
3. How is the relative influence among upper-interrelative factors?
4. How is the casual relationships among upper-interrelative factor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590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322 male, 268 female) and 400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30 male, 170 female.)

This study was limited to variables of SES(socio-economic-status) meaningful-influentialman,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spiraation.

In this study, the statistical methods applied the evidence of F, Sample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in occupational aspiration among each independent variables, except variables such as friends & superiors.
2. From the standpoint of interrelation among correlative factors in occupational aspiration, it is shown that girls have more meaningful interrelations than boys.
And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VHS) have them tha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GHS) in reversional background-factors and accomplishable ones.
3. In terms of interrelation factors among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boys have more influential power than girls, and GHS have more influential power than VHS.
4. While accomplishable ability factors have a big effect on deciding what jobs to choose in cause-effect relations among occupational aspiration relation factors, direct influence has an effect on girls, and indirect influence has an effect on boys in reversional background factor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have a great effect on VHS than GHS through various courses and parameters directly or indirectly.

In sum, results suggests that high school students' occupational aspiration is greatly inflcenced by accomplishable ability factors than reversional

background factors.

Thinking collectively, it is strongly inferred that our society will be toward achievements-oriented one, equality of opportunity regardless of sex will be guaranteed in our society.



職業抱負 決定 要因에 관한 질문지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이 질문지는 개인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직업포부를 결정하는지를 조사·분석하여 진로 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응답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성 의



< 질 문 지 >

다음은 학생의 개인적인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거나 ()속 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_____ ① 남 _____ ② 여

[2] 학교계열

_____ ① 실업계

_____ ② 인문계

[3] 학교소재지

- _____ ① 시 지역
_____ ② 읍,면 지역

[4] 학생이 부모의 교육 수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아버지 _____ ① 무학 및 국민학교 중퇴
_____ ② 국민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
_____ ③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_____ ④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_____ ⑤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중퇴
_____ ⑥ 대학원 졸업(석사)
_____ ⑦ 대학원 졸업(박사)

- 어머니 _____ ① 무학 및 국민학교 중퇴
_____ ② 국민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
_____ ③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중퇴
_____ ④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
_____ ⑤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중퇴
_____ ⑥ 대학원 졸업(석사)
_____ ⑦ 대학원 졸업(박사)

[5] 학생 가정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맞벌이 부모인 경우 포함한 수입)

- _____ ① 50만원 미만 _____ ② 50-80만원 미만
_____ ③ 80-110 미만 _____ ④ 110-140 미만

_____ ⑤ 140-170 미만
_____ ⑦ 200 만원이상

_____ ⑥ 170-200 미만

- [6] 학생 가정의 아버지가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부:사망시 어머니 직업)
아래 보기를 끝까지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의 번호를 써 주세요.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보기”의 해당번호 _____ 기타 (직업분야: _____ 직책: _____)

다음은 여러분의 장래 교육적, 직업적 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거나 ()안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7] 학생은 현재 학급에서의 성적은 어느정도입니까?

_____ ① 하위 81%이상 (49등이하) _____ ② 61-80% (37-48등)
_____ ③ 41-60% (25-36등) _____ ④ 21-40% (13-24등)
_____ ⑤ 상위 20%이하 (1-12등)

- [8] 직업 선택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학생은 선생님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영향 _____ 1)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
_____ 2)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
_____ 3) 보통이다.
_____ 4) 대체로 영향을 받았다.
_____ 5)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9] 직업 선택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학생은 친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구의 영향
- _____ 1)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
 - _____ 2)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
 - _____ 3) 보통이다.
 - _____ 4) 대체로 영향을 받았다.
 - _____ 5)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10] 직업 선택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학생은 선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배의 영향
- _____ 1)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
 - _____ 2)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
 - _____ 3) 보통이다.
 - _____ 4) 대체로 영향을 받았다.
 - _____ 5)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11] 학생은 현재 자신의 능력,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고등학교 졸업으로 종료
- _____ ② 전문대학(2년제)
- _____ ③ 대학교(4년제)
- _____ ④ 대학원(석사)
- _____ ⑤ 박사, 해외유학

[12] 학생의 능력,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당신은 장차 어떠한 직업을 갖고자 희망하십니까?

<직업의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 번호를 써주세요.

해당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보기”의 해당번호 _____ 기타 (직업분야: _____ 직책: _____)

직업의 보기

- | | | |
|-----------------------------|----------------|---------------------------|
| 1. 회사 경리사원 | 2. 연예인 | 3. 언론인 |
| 4. 경찰 | 5. 기능공 | 6. 간호원 |
| 7. 정부고위관리 (장·차관급이상) | 8. 청소원 | 9. 토목기술공 |
| 10. 회사사무직원 | 11. 회사 관리직 사원 | 12. 정부관리직공무원
(과장급) |
| 13. 외교관 | 14. 직업군인(영관급) | 17. 건축가 |
| 15. 어부 | 16. 판.검사 | 20. 대규모농장경영자 |
| 18. 일당노동자 | 19. 소방원 | 23. 약사 |
| 21. 정치가 | 22. 일당농업종사자 | 26. 이.미용사 |
| 24. 개인택시운전사 | 25. 실내장식가 | 29. 체육인 |
| 27. 디자이너 | 28. 요식.숙박업경영자 | 32. 3,000~6,000명
농지경작자 |
| 30. 외판원 | 31. 보험.증권거래인 | 35. 은행원 |
| 33. 예술가 | 34. 정부 일반공무원 | 38. 6,000명이상
농지경작자 |
| 36. 철도역장 | 37. 운수.통신업 종사자 | 43. 1,500명미만
농지경작자 |
| 39. 의사 | 40. 변호사 | 47. 사진사 |
| 41. 1,500~3,000명미만
농지경작자 | 42. 제도사 | 50. 복덕방 |
| 45. 연구원 | 44. 교수 | 53. 의사 |
| 48. 목축업자 | 46. 대기업주 | 56. 직업군인(장성급) |
| 51. 사회사업가 | 49. 회계사 | 59. 공장직공 |
| 54. 수위 | 52. 작가 | 62. 자영상인 |
| 57. 측량기사 | 55. 판매감독자 | 65. 항해사 |
| 60. 대기업체고급관리직 | 58. 행사 | 68. 안내원 |
| 63. 기계기술공 | 61. 교사 | 71. 조종사 |
| 66. 스텝어디스 | 64. 설계사 | |
| 69. 점원 | 67. 요리사 | |
| 72. 직업군인(하사관급) | 70. 정부하급공무원 | |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